

# 최근 5년간 고용동향의 변화



이 남 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nclee@krivnet.re.kr

## 1. 경제활동의 변화

1998년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5,36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2년 9월 현재 36,891천명에 이르렀으며, 동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21,456천명에서 22,793천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612천명(2.7%) 증가하였다. 199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전년도 대비 1.5%, 1999년에는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60.5%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 9월 현재 61.8%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취업자수에 있어서 1998년도에는 2.5% 감소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21,061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 21,362천명으로 증가하다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857천명(3.9%) 증가하였다. 1998년 실업자수는 전년도 대비 61.7% 증가한 1,451

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573천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2.9% 감소하였다. 또한 실업률에 있어서는 IMF 직후인 1998년 가장 높은 실업률인 6.8%까지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0년 4.1%, 2001년 3.7%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에는 3.0% 수준에 이르렀다(표 1참조).

〈표2〉는 주요 OECD 국가의 고용과 노동 성장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의 2001년 고용성장은 전년도와 2002년에 예측치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체 OECD 국가의 고용 성장률은 1.2%로, 전체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한국(1.5%), 미국(1.3%)이며, 영국은 가장 낮은 0.2%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1년에 심각한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장래까지도 계속된다고 예측되었다. 반면 한국은 2000년의 경우 1989~1999년 평균(1.5%)보다 훨씬 높은 성장(3.8%)을 보였으며 2001년 1.4%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03년의 경우도 증가(2.0%)를 OECD는 예측하고 있다.

노동력에 있어서 1989~1999년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은 1.2%로 호주(1.4%)외에 대부분 OECD 국가는 평균보다 낮은 노동력 성장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일본의 경우는 1989~1999년 기간동안에는

199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전년도 대비 1.5%, 1999년에는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60.5%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 9월 현재 61.8%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취업자수에 있어서 1998년도에는 2.5% 감소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21,061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 21,362천명으로 증가하다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857천명(3.9%) 증가하였다. 1998년 실업자수는 전년도 대비 61.7% 증가한 1,451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573천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42.9% 감소하였다.

〈표 1〉 고용지표추이

(단위 : 천명, %)

내역	1998	1999	2000	2001	2002
15세 이상 인구	35,362 (1.5)	35,756 (1.1)	36,139 (1.1)	36,484 (0.9)	36,891 (1.1)
경제활동인구	21,456 (-1.0)	21,634 (0.8)	21,950 (1.4)	22,181 (1.0)	22,793 (2.7)
경제활동참가율	60.7	60.5	60.7	60.8	61.8
취업자수	19,994 (-2.5)	20,281 (1.4)	21,061 (3.7)	21,362 (1.4)	22,219 (3.9)
실업자수	1,451 (61.7)	1,353 (-7.2)	889 (-52.2)	819 (-8.5)	573 (-42.9)
실업률	6.8	6.3	4.1	3.7	3.0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각년도).

주 : ( )안은 전년도 대비 증감을 임. 2002년도의 경우 9월 수치임.

〈표 2〉 주요 OECD 국가의 고용과 노동력 성장(평균 변화율)

(단위 : 천명, %)

구분	고용						노동력					
	2000년 수준	평균 (1989~1999)	2000	2001	예측		2000년도 수준	평균 (1989~1999)	2000	2001	예측	
					2002	2003					2002	2003
호주	9,097	1.2	3.0	1.0	1.4	1.8	9,707	1.4	2.3	1.5	1.2	1.5
캐나다	14,911	1.1	2.6	1.1	1.6	1.7	16,001	1.1	1.8	1.5	2.1	1.3
프랑스	24,139	0.5	2.5	1.5	0.4	0.8	26,643	0.6	0.9	0.7	1.0	0.6
일본	64,458	0.5	-0.2	-0.5	-1.5	-0.4	67,660	0.8	-0.2	-0.2	-0.7	-0.3
한국	21,061	1.5	3.8	1.4	1.8	2.0	21,950	1.8	1.5	1.1	1.3	1.7
영국	27,938	0.2	1.0	0.8	0.3	0.6	29,572	0.2	0.5	0.4	0.5	0.5
미국	135,219	1.3	1.3	-0.1	-0.4	1.4	1408,72	1.2	1.1	0.7	0.4	1.1
OECD 총계	478,046	1.2	1.3	0.4	0.0	1.1	508,926	1.2	0.8	0.7	0.6	0.9

자료 : OECD (2002), Economic Outlook (July).

주 : 1989-1999년의 평균임. 단 체코,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제외 됨.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2000년과 2001년 모두 0.2%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0.7%,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OECD는 예측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01년 1.1% 증가하였으며, 2002년 1.3%, 2003년 1.7%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표 3〉은 OECD 주요국의 25~54세 교육수준별 여성의 취업률과 성별 취업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인 취업률 수준에서 프랑스(69.6%), 영국(73.1%), 미국(74.1%)은 OECD 평균 취업률인 69.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66.8%), 일본(62.7%), 한국(56.3%)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녀 성별 취업률 격차는 가장 크게(31.8%)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은 가장 적은 성별 취업률 격차(14.4%)를 보이고 있다.

학력 수준에 있어서는 중등교육 이하 수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은 각각 49.7%로 가장 적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가장 적은 비율

을 보인 한국(56.3%)이 중등교육 단계 이하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64.8%)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수준에서의 여성의 취업률은 대부분 국가들이 OECD 평균(82.1%)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83.1%, 86.4%, 81.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가장 낮은 취업률인 55.0%로 나타났으며 성별 격차에서는 가장 큰 34.9%를 보이고 있다.

## 2. 고용구조의 변화

IMF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강력히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비용감소 노력은 임시,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었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국 노동시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998년 5,733천명에서 2002년 9월에는 7,227만명으로 1,494천명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임시직은 3,998천명에서 4,764천명으

〈표 3〉 교육수준별 여성의 취업률과 성별 취업률 격차 (25~54세)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중등교육 이하		대학교	
	취업률	성별격차	취업률	성별격차	취업률	성별격차
호주	66.8	20.0	58.1	21.5	79.9	11.5
캐나다	74.0	11.8	52.0	20.8	79.8	9.2
프랑스	69.6	17.7	56.5	23.6	83.1	8.5
일본	62.7	31.6	62.6	25.7	62.7	33.5
한국	56.3	31.8	64.8	20.3	55.0	34.9
영국	73.1	14.4	49.7	17.3	86.4	8.0
미국	74.1	14.8	49.7	26.5	81.9	11.6
OECD 총계	69.0	18.6	55.8	22.4	82.1	11.2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ly.

주: "성별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로 766천명이 늘었고, 일용직은 1,735천명에서 2,463천명으로 728천명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용근로자는 6,457천명에서 6,660천명으로 203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전 45.9%이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51.6%로 높아졌다.

또한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1997년의 7.4%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 비중은 8.6%(1,913천명)로 1.2% 증가한 반면 동기간 동안 36시간 이상의 취업자

의 비중은 92.6%에서 90.7%(20,142천명)로 감소하였다(〈표 4〉 참조).

학력수준별 실업률에 있어서 외환위기 이후 고졸자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졸자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보다 조금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까지 고졸자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보다 0.3%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9월 현재는 0.2%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5 참조〉).

〈표 4〉 MF체제 이전 및 이후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분석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상용근로자	6,457 (-9.7)	6,050 (-6.3)	6,357 (3.2)	6,525 (2.6)	6,660 (1.9)
임시근로자	3,998 (-4.4)	4,183 (4.6)	4,513 (9.5)	4,641 (2.8)	4,764 (3.0)
일용근로자	1,735 (-8.3)	2,289 (31.9)	2,431 (6.7)	2,321 (-4.5)	2,463 (7.6)
계	12,190	12,522	13,301	13,487	13,887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주: 2002년도의 경우 9월 수치임, (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표 5〉 교육정도별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2.0	2.6	6.8	3.4	3.1	2.5
중졸이하	1.1	1.5	5.8	2.7	2.2	1.7
고졸	2.5	3.3	8.2	3.9	3.6	2.8
대졸 이상	2.6	3.0	5.7	3.5	3.4	3.0

자료 : 통계청. 주: 2002년의 통계는 9월 기준임.